

지역 소식통

김제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에서는 2017년에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9개소를 신청하여 지난 26일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인증업체)가 농업경영·기술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시설,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생산기술 습득, 경영능력 향상, 유통구조 개선, 마케팅 전략, 판매 및 재무 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등, 농가의 요구에 따라 전문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은 오는 5월 10일부터 영유아 대표 독서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라는 취지로 펼쳐지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들어 있는 책꾸러미를 선물해 부모와 아이가 그림책을 매개로 즐겁게 놀며 책과 친밀해지고 서로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육아지원 프로그램이다.

완주군은 2012년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개관을 기점으로 북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꾸준한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와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별마루 작은도서관에서도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난해 책꾸러미 207개 배부와 1000여명이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남겼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여협, 여성리더 만들기 '호응'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익주)가 2017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꿈이 있는 여성리더 만들기, 행복담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26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으며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리더십 향상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교육협회 원장이자 한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박인옥 교수를 초청하여 가족과 젠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남녀 이해와 소통, 긍정마인드를 위한 변화,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과의 소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프러포즈축제'가 오는 5월 13일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 프러포즈축제 개최

5월 13일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서... 공연·전시·체험 다채

'완주 프러포즈축제'가 오는 5월 13일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 프러포즈축제는 모악산과 경각산, 구이저수지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모악산 일원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하였으며, 올해로 두 번째 열린다.

주행사장이 모악산 전북도립미술관 주변 일원에서는 프러포즈와 관련된 각종 공연, 전시, 체험행사가 운영되고, 프러포즈 커플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진행, 페이스북과 FM 90.1MHz를 연계한 사전 공모전 커플사진, 세줄편지가 4월부터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이색적인 프러포즈를 희망하는 7커플의 드레스쇼를 시작으로

로 축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황금커플링을 획득할 수 있는 최강 커플찾기 이벤트 '좋다고 말해'와 커플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 줄 '연애특강 토크콘서트'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통통튀는 로컬DJ '장해라'의 행복발진소 특집 공개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이외에도 ▲주민DJ들이 진행하는 두근두근 OST 음악방송 ▲미혼남녀들을 위한 사랑의 오작교 ▲두근두근 사랑패치 ▲재미로 보는 타로 ▲은행알 사랑증표 ▲이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작은결혼 체험관 ▲커플간식 만들기 등 커플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미술관일원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러블리한 스팟포토존 운영을 통해

사랑과 추억의 인증샷을 남길수 있는 '러블리 스왑 포토존'을 조성한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연인 혹은 프러포즈를 하지 못한 기혼커플들을 위해 '사랑의 백일주 담그기'와 '사랑의 자물쇠' 이벤트를 묶어 50커플 한정 프러포즈 여행상품을 사전예약 판매하고 있다. 참여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전화 063)290-2621~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 프러포즈축제는 여성을 상징하는 '모악산'과 남성을 상징하는 '경각산'의 사랑의 결실로 '구이저수지'가 풍요의 상징으로 조성됐으며, 이곳에서 사랑고백을 하면 꼭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스토리를 배경으로 열리는 축제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농어촌공 동진지사, 백과 통수식 행사 가져

낙양동산에서 안전 영농 기원·영농 위한 급수 돌입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26일 정읍 태인면 낙양리에 있는 낙양동산에서 안전영농을 기원하는 백과 통수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영농을 위한 급수에 돌입하였다.

이날 제90회 '백과통수식' 행사에는 김중회 국회의원을 비롯 각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대표, 정읍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운영대의원 22명, 농어업

인 115명과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영농을 기원했다.

정읍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를 통해 농업인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설물 자동화, 현대화 및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깨끗한 물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과 통수식은 낙양취입보의 수문을 열어 김제, 정읍, 부안지역 일대 1만4천여ha 거미줄처럼 연결된 용수로를 통해 3만3천여ha의 농경지에 영농급수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의미가 있는 '백과통수식'은 1927년 삼진강 상류에 6천만톤의 운암제(현 삼진강댐)를 축조하고, 산을 뚫어 전북 임실 옥정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끌어들이도록, 호남평야가 한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어 대역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소싸움대회 개최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싸움소 150여두 출전

대표적 싸움소 기량 대결의 장인 완주소싸움대회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

완주군은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에도 기량이 우수한 전국의 싸움소 150여두가 출전해 백두급(771kg이상), 한강급(671~770kg), 태백급(600~670kg) 조를 나누고, 조별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소를 가린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 4~5월 경북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소싸움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낸 완주 싸움소가 많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국구 체급별로 보면 백두급에서는 백두(정읍 김근우), 누리(김해 박희준) 등이 우승 풀망에 오르는 소들이다.

또한 한강급에서는 통일과 백머

리(청도 최진호), 태백급에서는 별이(대구 한중희)라는 쟁쟁한 실력을 자랑하는 소들이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노리고 있다.

완주에서 출전하는 소중에서는 백두급에 짝발(봉동 박운배), 싹쓰리와 격비(고산 송기수), 완주(고산 김명만), 한강급에서는 범용과 비수(화산, 김용범) 등이 우승을 노리고 있다.

신승기 산림축산과장은 "싸움소의 우직함과 끈기로 어려운 난국을 타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군민과 양축농가가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싸움소 162두가 출전한 지난 대회에서는 완주의 송기수의 '격비' 소가 백두급에서 완주 김용범 씨의 '이방지' 소가 한강급에서 청도의 박기환 씨의 '일부' 소가 태백급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완주군, 민·관·학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7 완주군 민·관·학 공동 국제학술대회가 26일 완주군청 문화강화실에서 완주군 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전공 대학·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장신대(총장 구춘서),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수), 완주군건강가정0104다문화지원센터와 독일 민간복지협의회인 '부트템베와 디아코니아'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대회는 '사회복지국가에서의 민관협력과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에는 최근 민관협력과 네트워크

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민간 복지기관, 공공기관, 대학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적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장을 만들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292개 디아코니아 1200개 복지시설, 4만여명의 종사자로 구성된 독일 최대 규모의 민간복지협의회인 부트템베와 디아코니아 공동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부서 책임자, 슈트트가르트 개신교연합재단 공동의장, 헤른베르 디아코니아야자매회 이사장, 디아코니아 지역센터 기관장, 사마리아재단 기관장 등 독일 사회복지기관 대표자 4명이 방문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보건소, 금연 합동 지도 단속 나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공공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금연합동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금연지도원, 경찰서, 한국외식업협회가 3개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PC방, 금연거리, 도시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 지역주

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